

# 침팬지 사랑 39년 말도 통하는 '정글북' 박사



'타잔'에 반해 아프리카행 영 제인 구돌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 탄  
자니아의 고프 국립공원  
탕가니카 호숫가. 동이 틀 무렵인  
오전 7시 제인 구돌(65·여)박사  
가 나타나자 수십마리의 침팬지가  
소리를 지르며 반갑게 맞는다. 구  
돌은 그중 몇몇과 손을 잡거나 새  
끼들을 안아주며 자연스럽게 인사  
를 건넨다.  
구돌 박사가 이곳 침팬지와 생활  
한 지 39년째. 이젠 침팬지 가족이

된 그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www.janegoodall.org](http://www.janegoodall.org))를 개설,  
'침팬지 뉴스'를 게재하고 있다.

오늘은 어미 침팬지 겔러헤드와  
새끼 그렘린의 뒤를 따라다니기로  
했다. 밀림 속을 누비며 이들을 쫓  
아다니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  
다.

우거진 풀숲을 헤치다 온 몸에  
상처를 입기는 '다반사. 독충과 독  
풀도 널려있다.

점심식사는 침팬지들의 주식인 나무열매. 입에 댈 수도 없을 만큼 시다. 설익은 열매도 많다. 그러나 침팬지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면 침팬지들은 자신들의 휴식처로 돌아간다. 갖고 있던 나무열매를 건네주자 아기 침팬지 그랩린이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위로 쳐들고 입을 내밀며 “우-” 소리를 낸다.

영국 남부 본머스에서 태어난 그녀가 처음 야생동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네살 때 아버지로부터 침팬지 인형 ‘주빌리’를 선물 받으면서부터. 그후 ‘타잔’ ‘정글북’ ‘닥터두리틀’ 등 TV시리즈를 보며 아프리카생활의 꿈을 키우던 그녀는 26세가 되던 지난 60년, 탕가니카 호수 유역에 정착해 본격적으로 야생 침팬지 연구를 시작했다.

침팬지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는 수개월간 밀림을 쏘다니며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침팬지들이 경계해 도망갈까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인내와 끈기를 갖고 자신들을 지켜보는 구돌 박사에게 침팬지들도 차츰 익숙해졌다.

그녀의 침팬지연구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중 침팬지가 나뭇가지 등을 이용, 사냥을 한다는 사실은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기존 생물학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그밖에

▷침팬지도 육식을 한다

▷얼굴표정과 몸짓·울음소리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침팬지 집단에서도 서열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은 그녀의 관찰 결과로 새롭게 알려진 것들이다.

특히 먹을 것을 발견하면 ‘으라-’하고 길게 빼는 울음소리를 내고, 서열이 낮은 침팬지가 엉덩이를 보여주며 인사를 하면 우두머리 침팬지가 그들을 쓰다듬어

주며 답을 한다는 것 등 '침팬지 언어'를 이해한 뒤 그들과 대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같은 연구를 토대로 94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프리카 야생동물의 세계를 다룬 저서 10여권과 자서전도 냈으며 지난 91년엔 '루츠 앤 슈츠'라는 재단을 만들어 전세계 50여개국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최근 탄자니아 정부는 자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구돌 박사에게 '킬리만자로 메달'을 수여, 그녀의 연구업적을 기렸다.

◇침팬지 = 오랑우탄과의 동물.

30~80여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수명은 50~60여년.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가이아나 부근에서부터 탕가니카 호반까지 적도삼림벨트를 따라 분포.

